

# 황산, 공급부족으로 17.5% 상승

한은, 타이어 중심으로 플라스틱도 4.7% 올라 ... 4개월 연속 오름세

4월 한달 동안 금속1차제품(6.1%)에 이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1.7%)의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랐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4년 4월 화학제품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(나프타) 가격상승 영향으로 황산이 무려 17.5% 오르고 벤젠이 9.0%, SM(Stylene Monomer)이 5.9%, Propylene이 3.0% 오르면서 전월대비 0.6% 상승했다. PU(Polyurethane) 수지도 7.9% 올랐다.

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가 4.5%, 벙커C유가 3.1%, 등유가 0.5% 오르면서 0.5% 상승했다.

특히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은 원자재 가격상승 영향 등으로 승용차용 타이어가 9.4%,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가 4.5% 오르고 플라스틱관이 7.6%, 플라스틱 주방용품이 18.5% 오르는 등 전월대비 1.7% 상승했다.

음식료품 및 담배는 밀,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0.7% 상승했으며, 금속1차제품은 고철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상승 영향으로 6.1% 상승했다.

공산품 전체의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영향으로 0.9% 상승했다.

## 생산자물가 등락률(2004.4)

(단위: %)

구 분	증감률	주요 품목
음식료품/담배	0.7	밀가루(9.1), 고추장(12.7), 가공육(3.7), 전분(8.9)
석유제품	0.5	벙커C유(3.1), 나프타(4.5), 등유(0.5), 아스팔트(5.2)
화학제품	0.6	벤젠(9.0), SM(5.9), Propylene(3.0), 황산(17.5), PU Resin(7.9)
고무/플라스틱제품	1.7	버스/트럭용 타이어(4.5), 플라스틱 관(7.6), 승용차용 타이어(9.4), 플라스틱 주방용품(18.5)
금속1차제품	6.1	열연광폭대강(19.7), 냉연광폭대강(17.2), 중후판(13.5), 아연도강판(9.5), 전기동(8.6)

한편, 2004년 4월 국내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.5% 올라 2004년 들어 4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세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.

생산자물가 지수는 제품가격의 변동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5/14>